

2020 주일메세지 '은혜'

예상하지 못한 의외의 순간에 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1. 구약과 신약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다. 말씀의 응답이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뉜다. 말씀이 분리된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패러다임에 대한 것이다. 율법과 은혜의 패러다임이라 말할 수 있겠다. 말씀은 같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좋고 나쁜가의 개념이 아니다. 구약의 말씀은 율법으로 이해되어 진다. 율법은 분명하다. 선명하다. 딱 맞는 개념이다. 보여지는 것이다. 오차가 없다. 그래서 율법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말한다.

신약의 은혜는 그 완전하고 오차없는 구조를 움직이는 '엔진'에 관한 것이다. 모양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양이 존재하는 가치를 보여준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형상이라는 모양을 중요하게 여기셨다. 그러나 그 형상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바로 그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히브리서 4:12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정확한 표현이다.

[히브리서 4: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2. 은혜와 은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깊고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 은혜를 알기 위해 위에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의 속성을 살펴보았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구약 : 꼭 맞아떨어져야 하는 일

이벤트 사건 중심이다. 법대로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래서 한 번의 제사가 중요하다. 이것이 잘못되면 복구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개념이 정확하다. 명확하다. 선이 분명하다. '구분'이 있다. 바로 그와 같은 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타난다. 장막을 보아도 지성소, 성소, 뜰과 성막 바깥의 구분이 명확하다. 애매함을 있을 수 없다.

(2) 신약

* 신약 - 말씀이신 예수님이 제사 중심이 아닌 사람들의 삶 안으로 들어오셨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이다.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과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확장'시키셨다. 안식일에도 사람을 고치셨다. 안식일이라는 '벽'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방인들을 구분하는 명확한 표시였다. 그런데 예수님은 과감히 '벽'을 허무셨다. 벽을 허문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과격한 일이다.

왜 이와 같은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시는 것이다. 강직성이 아니라 유연성과 확장성에 초점을 두셨다. 그렇다고 강직성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양날 선 검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다. 한 검에 양날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3) 은혜의 레벨로 확장된 말씀

율법의 강직성은 '죄'에 대한 것이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씀은 법이었고 법은 강직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선택이 없는 것이다. 선택과 기회가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율법의 강직성을 이해할 수 있다. 왜 한 번의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에게 있는 죽음의 문제는 실재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구세주, 메시아'를 기다렸다. 이 모든 죄를 완전히 이기시고, 완전한 자유와 생명을 주실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 메시아로 오셨다.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 우리의 모든 죄가 율법의 요구대로 대가를 지불했다. 완전히 갚아진 것이다. 그 구원이 우리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어졌다. 바로 아무 조건 없는 '구원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사는 것이다.

(4) 새 포도주를 새 가족부대에

[마가복음 2:22]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족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족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족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족 부대에 담아야 한다

낡은 가족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다고 하셨다. 낡은 가족부대가 잘못되었다는 개념이 아니다. 낡은 가족부대는 율법의 부대를 말한다. 딱 맞게 떨어져야 한다. 양도, 포도주의 상태도 정확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변동이 있으면 찢어진다. 맞는 말이다.

우리의 구원은 '말씀'의 요구대로 정확히 이루어져야 한다. 조금의 오차도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이 옛 가족의 옷을 입고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셨다. 그렇다면 새 포도와 새 가족부대는 무엇인가?

정확히 말하면 '구원의 은혜' 다음의 '은총과 은혜'를 말하는 것이다.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땅에 이미 이루어졌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주어졌기 때문이다.

새 술은 무엇을 말하는가? 왜 옛 가족부대가 담을 수 없는가? 새 포도주 안에 있는 확장성을 말한다. 옛 가족부대로 담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 이상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는 것 하나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팽창된다. 퍼져 나간다. 유대인에게 국한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과 열방으로 번져 나갔다. 이렇게 확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새 포도주를 담아낼 새 가족부대가 필요한 것이다.

3. 더 깊이 경험해야 할 은혜의 삶 - 구원의 은혜를 넘어서

[마태복음 16:24-25]

24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기를 부인하고, 어떤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인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한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제자들'이다. 그들이 부인해야 할 자기와 십자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자기와 십자가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다. 더 깊은 단계의 '제자의 삶'을 말하는 것이다. 제자로 살면서 받아야 할 은혜를 말하는 것이다. 구원의 은혜는 이미 제자들에게 주어졌다. 구원에 관한 십자가는 이미 예수님이 지셨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가?

4. 차원이 다른 제자들에게 임하는 은혜

구원받은 성도들의 다음 단계의 삶은 제자의 삶이다. 제자가 말씀을 붙잡고 가는 여정도 이와 같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기 위해 받아야 할 은혜를 말한다. 구원의 은혜속에 살지만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말한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 '자기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1)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따라가는 일이 쉽지는 않다. 내 개인의 구원에 관한 여정과 다르다. 이미 구원받은 나이이지만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 있다. '죄의 본성'들과의 충돌이다. 순종하고 싶은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이다. 그 자아를 부인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이루실 말씀을 십자가로 지는 것이다. 희생과 섬김의 삶이다.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여정'이다. 따라가는 길이라 하지 않는가? 구원의 은혜를 넘어서 제자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어디에서 임하는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같이 겸손히 그분의 삶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곳에 바로 역사가 일어난다. 은혜의 속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겸손과 헌신, 희생 뒤에 부여진다. 그 은총의 모든 것이 내게 능력을 준다. 그리고 그 능력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은총을 경험하면 단순히 낮은 차원에서 겸손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가능하게 해준다. 내 힘으로는 낮은 차원의 겸손까지 갈 수 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겸손의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희생을 기꺼이 할 수 있게 해준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며 사는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특별한 보상이 은총이다. 그 은총은 제자들을 강건하게 하며, 모든 것을 다른 차원에서 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2) 능력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순간이 있다. 그 순간은 부족하지만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의외의 모습과 순간으로 찾아온다.

* '다윗' - 법궤를 들여오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결하지 않은 다윗의 마음을 받지 않으셨다. 다윗의 연약함이 묻어 있는 제사였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연약함 가운데 있는 다윗을 책망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응답은 책망이 아니라 '축복과 부흥'의 돌파로 임하셨다.

[사무엘하 6:11-12]

11 여호와와 그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벧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벧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12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벧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벧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자신의 연약함으로 두려워하고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의외의 모습으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늘로부터 불이 임한 것도 아니다. 초자연적인 어떤 일도 아니다. 한 예배자의 일상에 복을 주신다. 왕인 다윗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소박한 오벧에돔에게 임한 복 앞에 다윗의 기쁨이 회복된다.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힘써 달려갈 수 있는 '의외의 은혜'의 순간을 주신다. 그리고 그 속에서 깊이 만나신다. 진하게 만나신다. 그 깊은 은혜가 제자들이 누려야 할 새로운 차원의 은혜이다. 오늘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 투성이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모든 제자들에게 부여되는 강력한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